

일타강사 심학규·엔터대표 성춘향, 현대적으로 '열어볼 결심'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마당창극... 23일 광주예술의전당 '춘향가·흥보가·심청가·적벽가·수궁가' 판소리 다섯마당 재해석 전통 판소리에 K-POP·트로트·EDM 결합... 젊은 감각 창극 관심

일타강사 심학규와 엔터 대표 성춘향... 이들은 익숙하지만 어딘지 낯설다. 판소리 다섯 마당이 현대판 마당창극으로 다시 태어났다. 전통 판소리에 K-POP, 트로트, EDM을 절묘하게 녹여낸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작품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광주시립창극단이 2025년 특별기획공연으로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을 무대에 올린다.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시립창극단은 최근 예술의전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열어볼 결심' 시연을 비롯한 전반적인 작품 설명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이번 작품은 시립창극단 최초의 마당창극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마당창극은 판소리의 이야기 구조와 소리를 바탕으로 전통 연희인 탈춤, 풍물 등을 결합한 공연으로 1970년대 이후 등장해 출연진과 관객이 소통하는 역동적인 공연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 작품은 '춘향가'를 비롯해 '흥보가', '심청가', '적벽가', '수궁가' 등 판소리 다섯 마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혀 다른 스토리로 풀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무대의 배경은 2025년 도화동 복덕촌 망월포. 왕년에 이름 좀 날리던 K-셀럽, 춘향, 심청, 학규, 토씨, 끝둥이 한 자리에 모인다.

심학규는 시니어들에게 2025의 인생을 강의하는 일타강사, 심청은 패션비즈니스 대표, 성춘향은 연예기획사 대표로 각각 변신했다. 토씨(도끼)는 정치인 역할을 맡았으며 흥보가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 끝둥이도 새롭게 등장한다.

이들은 효도와 순종 같은 전통적 가치관을 과감히 벗어던진다. 대신에 재벌 흥보의 선물을 둘러싼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망을 거둬들이고 드러낸다. 과연 '열어볼 결심'이라는 제목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번 간담회에는 판페라 '이순신'을 기획·연출한 광주 출신 박승희의 시립창극단 예술감독과, 전주브랜드 창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를 연출한 오진욱 연출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젊은 감각의 창극을 만들고자 했다"고 입을 모았다.

시립창극단이 창단 36주년을 맞이한 만큼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겹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의기투합했다. 공연은 K-POP과 트로트, 힙합, EDM 등 전통 판소리에서 볼 수 없었던 음악 구성으로 캐릭터들의 자유분방함을 표현해낸다.

오연출가는 "시립창극단의 신선하고 파격적인 도전이 담긴 이번 작품은 현대적인 대본과 창극 음악의 확장 가능성, 깊이 있는 연기와 역

동적인 안무를 통해 창극의 다양한 표현 방식과 매력을 보여준다"며 "전통 판소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단원들의 다채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시도를 담은 축제 같은 무대를 만들고자 했다"고 의도를 밝혔다.

그의 포부대로 젊은 배우들의 간드러지는 창과 능청스러운 연기는 공연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학규역의 정승기, 춘향역의 이서희, 끝둥이역에 이은비, 토씨역에 정동훈, 심청역에 김연우, 갈랑역에 박형진 배우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때로는 들어본 듯한 판소리의 한 대목을, 때로는 팝의 한 소절을 노래한다. 다채로운 음악 장르가 등장하는 만큼 배우들은 전통 연희의 움직임 표현하더라도 유명 K-POP 댄스를 선보이는 등 변화무쌍한 무대를 펼친다. 관객들은 번번히 예상을 벗어나는 레퍼토리에 웃음을 터뜨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승기 배우는 "이번 작품은 지금까지 해왔던 공연들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음가짐까지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은 주로 소리에 집중해 왔다면, 이번에는 관객들에게 소리는 물론 안무와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전하고자 노력했다"고 준비 과정을 밝혔다.

박승희 예술감독은 "심청가나 춘향가, 적벽가와 같은 전통이 주는 메시지가 오늘날까지 전해져오는 데에는 시간간을 초월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친 현대인들에게 밝으면서도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다"며 "새로운 공연, 처음 선보이는 작품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S석 2만원, A석 1만원, 티켓링크 예약. /글: 사진: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오는 23일 특별기획공연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이 펼쳐진다. 시립창극단 단원들이 최근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위안과 치유 '인간의 숲'

이지수 개인전, 6월 1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저벅저벅'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세상이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했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았다. 지나친 경쟁과 양극화는 현대인들을 잠시도 쉴 수 없게 한다.

자연이 주는 힘, 자연이 주는 위로는 각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인간은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위안과 치유를 자연을 통해 얻는다.

영산강문화관(관장 신성규)에서 오는 6월 1일까지 펼쳐지는 이지수 개인전 '인간의 숲'. 주제가 말해주듯 작가는 서로 연결된 인간의 존재를 자연의 관계로 치환한다.

작가는 자연의 흐름과 생명의 관계를 매개로 인간 세상을 들여다본다. 자연 속을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은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다. 연결이 주는 위안과 더불어 개개의 존재들이 발하는 소중한 고스란히 인간이라는 존재와 관계로 수렴된다. 즉 자연의 모습은 인간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작품 '저벅저벅'은 유쾌한 상상력과 발랄한 이미지로 시선을 끈다. 어린 소녀가 강아지로 보이는 동물 위에 올라타고 숲속을 여행하는

모습은 환상적이면서도 유니크하다. 주위를 둘러싼 숲은 온통 초록 전지이며, 군데군데 보이는 분홍색 꽃은 어울림과 조화를 상징한다.

작가는 "왜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위로를 받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상처받은 인간 관계에서 지친 마음이, 자연의 상호작용을 보며 다시금 따뜻한 연결을 상상하게 되는 순간, '위로'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전시와 연계된 이벤트도 매주 금요일(16일, 23일, 30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작가가 전시장에 머물며 관람객의 지문 위에 자신의 캐릭터 '나'를 그려 넣는 '라이브 드로잉'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성규 관장은 "오늘의 세계에서 인간은 고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 연결된 구조라는 토대 위에서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과 예술,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각도로 사유하고 관계의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작가는 조선대 화학부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일남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ROND오케스트라

<디딤돌 제공>

'변호사 홍남순-5·18 45주년 기념음악회'

전문예술단체 디딤돌, 1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민주화의 대부', '오월의 인권변호사'... 광주 지역 1세대 민주인권변호사인 고(故) 홍남순 변호사를 기리는 음악회 열린다.

전문예술단체 디딤돌은 '변호사 홍남순-5·18 민주항쟁 45주년 기념음악회' 공연을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사)한국음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가 후원하고, 디딤돌과 협동조합 효성, 룬드문화플랫폼이 공동 주최·주관한다. 홍남순 변호사의 삶과 헌신, 그리고 5·18이 품은 민주와 인권의 정신을 음악으로 다시 조망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무대는 그의 신념을 예술로 풀어낸 창작곡

'말 없는 사람(변호사 홍남순을 위하여)' 초연의 중심으로 구성된다. 김인규 작곡, 황종권 작사로 완성된 이 곡은 홍남순 변호사의 삶과 1980년 광주의 기억을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와 함께 오케스트라, 합창단, 성악 솔리스트가 어우러져 인간의 존엄과 시대의 정신을 음악으로 전할 예정이다. 백진선 디딤돌 대표는 "예술로 기억하고 음악으로 전하는 홍남순 선생의 이야기가 광주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따뜻하게 전달하길 바란다"며 "이번 공연이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자긍심을 안겨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오월 꽃피우는 낭만클래식

카페뮤지엄 CM, '화요클래식' 라인업 공개



카페뮤지엄에서 오는 13일과 27일 5월 'CM 화요클래식'이 펼쳐진다. 이전 공연에서 관객들이 무대를 감상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5월, 클래식의 선율이 봄밤의 낭만을 더한다.

카페뮤지엄 CM이 5월 'CM화요클래식'의 라인업을 공개했다. 오페라의 명장면들을 클라리넷과 피아노로 풀어낸 환상적인 밤과, 라벨·슈베르트·드보르작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두 가지 공연이 관객을 기다린다.

오는 13일 오후 8시에는 클라리네티스트 정진웅과 피아니스트 정지연이 함께하는 '클라리넷의 오페라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 무대에 오른다. 1부에서는 루이지 비시의 '리콜레토', 카를로 델라 자코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등 풍부한 감성의 드라마틱한 오페라가 연주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로브렐리오의 '라 트라비아타', 사라사테의 '카르멘'을 통해 클라리넷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5월의 마지막 주인 27일에는 피아니스트 김민준과 조혜원이 함께하는 'Storytelling in Sound'가 펼쳐진다. 라벨의 동화 같은 '어미 거위(Ma mere l'oye)',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드보르작의 정열적인 '슬라브 춤곡'까지, 각각의 곡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이색적인 봄밤의 분위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혜원 피아니스트는 "5월을 맞아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연주자들이 준비돼 있다"며 "많은 관객들이 CM화요클래식에서 클래식이 전하는 여유와 낭만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람료 5000원. /정혜원 기자 hey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대한민국 미술축제' 참여

오는 9월 한 달간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공식 참여한다.

지난 4월 29일 서울 아트코리야랩 아고라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출범식에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참여해 축제 취지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남국제수묵·서울미디어시티·청주공예·부산비디오피스티벌·대구사진·광주디자인·세계사에전북 등 전국 7개 비엔날레와 키아트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등 3개 아트페어가 함께하며 관광·교통·지역 문화 유관기관 등이 함께 만드는 미술축제이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와 협약을 맺고 '2025 신진작가 전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스터후드의 '잠들지 않는 이들을 위한 노래, Nocturne' 전시회가 개최된다.

더불어, 오는 6월 16일부터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념 특별할인 입장권을 티켓링크를 통해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오는 8월 30일부터 '문명의 이웃들(somewhere over the yellow sea)'이라는 주제 아래 목포시, 진도군, 해남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5월 1일부터 입장권 사전예매를 시작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